



# 자율안전이 만들어낸 무재해 10배

취재 | 최중덕 기자

‘1974년에 창립한 삼창기업 주식회사는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정상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함처리, 일상 예방정비 및 계획 예방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재해 10배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였다. 이는 부산지역 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기록으로 지역 안전문화 정착에 기록제로 충분하다.

특히 삼창기업(주) 산업재해의 온상이라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무재해 기록은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 머리말

삼창기업(주) 관계자는 89명의 적은 인원이기에 무재해 10배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현장에서 안전사고가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경영주의 확고한 안전의지, 지키려는 근로자의 노력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무재해다.

4개 호기의 발전소가 있고, 12개월에서 18개월 주기로 시행하는 핵연료 교체를 위한 계획예방정비 공사에 많은 외부 공사 업체가 참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무재해 10배 달성이 어찌 근로자가 적다고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록인가. 여기에는 분명 삼창기업의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 위험요소 없을리 없다

1개 호기 당 1년에 1회 정도 핵연료 교체를 위한 계획예방 정비를 시행하는데, 이때 가장 많은 위험이 노출된다. 기계를 분해하고, 크레인을 운행하는 정비작업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이다 보니 사소한 사고에서 중대사고까지 발생할 여지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

고소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사고 위험을 비롯해 시설물과의 충돌, 사다리 및 계단 이동시 전도, 소음에 의한 난청, 방사선 피폭 사고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기 회전체에 의한 협착과 고온접촉에 의한 화상, 감전 등도 앞서 말한 위험과 더불어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로 현장에 준비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삼창기업의 무재해 10배, 무재해 13년의 배경에는 분명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 철저한 안전회의 그리고 안전교육

불안정한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삼창기업(주) 사람들의 말이다. 그래서 사고 예방 중심에 안전회의와 안전교육을 두고 있다.

팀별, 작업단위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안전회의와 교육은 삼창기업의 표준작업과 표준동작을 형성했고, 안전의식 개발과 지속적인 반복교육은 삼창기업만의 안전문화로 뿌리내렸다.


주 1회 30분 이상의 주간안전 교육을 비롯해 1시간 이상의 월간안전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시간으로 위험공정에 대한 특별교육, 신입사원에 대한 초기 및 계속교육, 팀별로 시행되는 작업전 안전교육을 비롯해 계획예방정비 수행전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은 확고한 무재해의 기틀을 다졌다.

### 안전 없는 작업은 없다

원자력을 취급하는 발전소로 단 한 순간의 실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수 있어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은 기본에 충실하자 이다. 삼창기업의 안전도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모태를 두고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삼창기업이 중점을 두는 사항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현장 순시점검이다. 그리고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회와 연계한 안전관리 공조체제는 무재해 달성에 커다란 아군이다라는 것이 삼창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회 담당자인 김국한 대리는 “안전관리대행업무 13년 동안 제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서 무재해 10배 달성 사업장은 삼창기업이 처음입니다. 무재해를 이끌어준 삼창기업에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영광입니다.”라고 말한다.

규모는 작지만 조직은 그 어느 기관에 뒤지지 않는 구성과 연간 억 단위의 안전관리비의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오늘의 대기록 달성의 원동력이었다.

현재와 같은 현장 분위기로 앞으로 무재해 11배, 12배를 달성할 것이라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삼창기업 사람들은 “신나는 직장! 살맛나는 사업소”로서 인근 사업장 및 동종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준다는 사명감으로 자율전문화정착, 화합추진, 근로의식 고취 등을 앞세워 국내 제일의 무재해 모범 사업장이 된다는 각오다. 



### 무재해 20배 아니 그 몇 배속를 기원하며...

무재해 운동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안전관리자의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금번 고리사업소의 무재해 10배 달성이 회사나 저 개인의 명예, 그리고 대외 이미지를 높인 것이 아닌 우리 삼창 가족의 안전과 행복지수가 상승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용표 사장

우리 삼창 가족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지켜지는 타율적인 안전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하는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율적인 안전을 위하여 불안정한 설비의 개선과 개인 안전보호구의 지급 방법 개선 등 어떠한 투자도 아끼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주와 근로자 관계가 아닌 “가족”이라 생각하고 건전한 직장풍토 조성과 선진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리사업소의 무재해 10배 달성을 우리 삼창가족 모두와 함께 축하하며, 항상 변치 않는 초심으로 삼창가족이라는 가슴 따뜻한 단어를 떠올리며 무재해 20배 아닌 그 몇 배수 달성을 기원합니다.

늘 언제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업소로 지속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삼창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